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55 호

2021년 8월 17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 개최 (8/19)
2. 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 개최 (8/20, 공공기관 대상)
3. COP26 웨비나: Race to Zero 안내 (8/25)
4. SDG 앰비션 런칭 및 참여사 모집 안내 (~9/30)
5. 먼슬리 8 월호 <SDGs 투자와 CFO 의 역할> 발간 안내

■ 본부 소식

유엔 총회 UNGC 부대행사, Uniting Business Live 신청 안내 (9/20-22)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LG 전자
2. [SDGs 솔루션] 위생, 청결과 건강을 위한 손 씻기 - 유니레버

■ UNGC 회원 뉴스

1. CJ ENM, ESG 경영 본격화...위원회 만들고 UNGC 가입

2. SKT·카카오, 200 억원 규모 'ESG 펀드' 조성...중소·벤처 성장 지원
3. LG 전자, '2030 탄소중립' 속도...글로벌 탄소감축 캠페인 참여
4. 신한금융, 국내 최초 '탄소제로금융'으로 ESG 선도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 개최 (8/19) (모집 마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8월 19일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을 개최합니다.

2 차 미팅에서는 존 러기(John Ruggie) 하버드 대학교 교수 및 前 유엔인권이사회 사무총장 특별대표, 미셸 바살레(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 단테 피스(Dante Pesce)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 등이 참여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채택 10주년」 UNGC 리더스 서밋 특별 세션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법무부의 「인권정책기본법과 인권경영」에 대한 발표를 들어봅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두일 연구원 / 박희원 연구원 (02-749-2149), gckorea@globalcompact.kr)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기업과 인권 국제동향에 대한 이해 및 우리 기업의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해 주요 과제 및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지식 공유 및 동료 학습 플랫폼으로, 1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은 1 회성 행사가 아닌, 연초 모집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정규 활동이기에, 연초 실무그룹 모집 시 신청하지 않으셨으나 2 차 미팅부터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기관의 경우 사무처로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상세 안내>

·일시: 8월 19일(목) 14:00 - 17:00

·장소: 온라인 진행 (추후 참가 신청자 대상 Zoom 링크 공유 예정)

시간	프로그램
14:00 - 14:05 (5')	인사말 - UNGC 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
14:05 - 14:35 (30')	(영상)'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채택 10주년' UNGC 리더스 서밋 특별 세션 - John Ruggie 하버드 대학교 교수 & 前 유엔인권이사회 사무총장 특별대표 - 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 - Dante Pesce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 - Roberto Suárez Santos 국제경영자단체연맹 (IOE) 사무총장 - Rachel Davis 쉬프트(Shift) 부회장 및 공동창립자
14:35 - 15:20 (45')	(발표) 인권정책기본법과 인권경영 - 유원정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15:20 - 15:30 (10')	휴식
15:30 - 17:00 (90')	참여자 인권경영 현황 공유 - 진행: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자세히 보기

2. 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 개최 (8/20, 공공기관 대상) (모집 마감)

2021 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 안내 (8/20)

- 공공기관 대상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8월 20일 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공공기관 대상)을 개최합니다.

2 차 미팅에서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 등급을 받은 반부패 우수기관 두 곳을 초대하여 사례 발표를 들어봅니다. 또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응을 포함한 반부패 노력에 대해 참여기관 간 상호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상현 과장 / 장한별 연구원 (02-749-2150), gckorea@globalcompact.kr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실무그룹 (3 차) 미팅은 9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UNGC 반부패 실무그룹은 최근 반부패 법·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며 반부패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지식 공유 및 동료 학습 플랫폼으로, 1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은 1 회성 행사가 아닌, 연초 모집한 '2021 반부패 실무그룹'의 정규 활동이므로 연초 실무그룹 모집 시 신청하지 않으셨으나 2 차 미팅 때부터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기관의 경우 사무처로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상세 안내>

·일시: 8월 20일(금) 14:30 - 16:30

·장소: 온라인 진행 (추후 참가 신청자 대상 Zoom 링크 공유 예정)

시간	프로그램
14:30 - 14:35 (5')	인사말 - UNGC 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
14:35 - 14:55 (20')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사례 (1) -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예린 감사역
14:55 - 15:15 (20')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사례 (2) - 근로복지공단 김남희 팀장
15:15 - 15:20 (5')	휴식
15:20 - 16:30 (70')	참여 기관 반부패 현황 공유 - 진행: UNGC 한국협회 이수란 팀장

자세히 보기

3. COP26 웨비나: Race to Zero 안내 (8/25)



UNGC 한국협회는 주한영국대사관(British Embassy Seoul),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함께 'COP26 웨비나:Business Race to Zero'를 개최합니다.

Race to Zero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에 의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시/지방정부, 기업, 투자자 및 대학 등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2021년 7월까지 전 세계 3,067개 기업, 173개 투자자, 733개 도시, 31개 지역 및 622개의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BTi) 참여를 통한 1.5도 목표 설정 방법과 Race to Zero 캠페인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되는 제 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이 전까지 한국 기업의 기후 리더십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COP26 Webinar: Business Race to Zero

일시: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14:30 - 16:00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30 – 14:35	인사말 (주한영국대사관, 한희경 매니저)
14:35 – 14:40	COP26 소개 (High Level Champion for Climate Action at COP26, Nigel Topping (TBD))
14:40 – 15:10	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Kosif, 김태한 연구원)
15:10 - 15:30	Business Ambition for 1.5 °C (UNGC, 이수란 팀장)
15:30 - 16:00	질의응답

참여 방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사전 참가신청자에게 행사 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bDi3uHhbSjp7xwM46>

문의: UNGC 한국협회 (02-749-2150, gckorea@globalcompact.kr)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02-738-1152, kosif@kosif.org)

주최:



[자세히 보기](#)

4. SDG 앰비션 런칭 및 참여사 모집 안내 (9/30)



SDG 앰비션은 6 개월 동안 진행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이 야심찬 기업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전략의 핵심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합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합니다.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2030년까지 17 개의 SDGs 를 달성하는 여정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9월 30일**에 마감되며, UNGC 회원사는 본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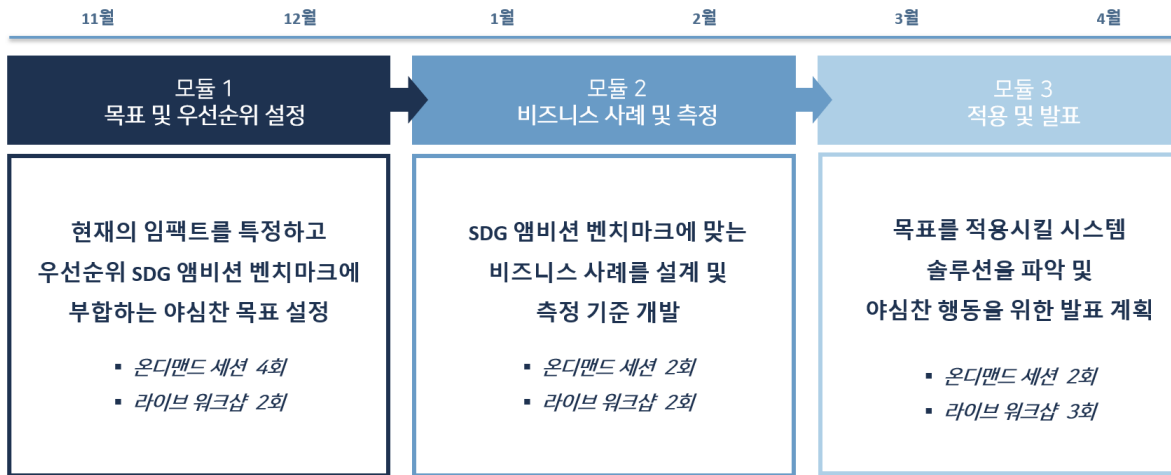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기업을 대표하여 SDG 앰비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두 명의 담당자**들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우선순위와 목표 설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한 명(예: ESG, 경영전략 부서)과 조직의 목표에 대한 성과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한 명(예: 정보, 기술 부서, M&E)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두 명의 SDG 앰비션 담당자와 함께 CEO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급인 **“챔피언”**을 지정해야 합니다.

6 개월 동안 진행되는 SDG 앰비션 프로그램은 총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UNGC 아카데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여덟 번의 온디맨드(on-demand) 세션과 전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일곱번의 라이브 워크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 기업의 담당자들은 워크샵과 온디맨드 과정에 과정에 참여하고, 총 30 여 시간(매주 2-3 시간) SDG 앰비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SDG 앰비션 프로그램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일정(안)

세부 내용	일정(안)
참여 기업 모집	2021년 8월 ~ 2021년 9월
OT 및 Welcome Call	2021년 10월
모듈 1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모듈 2	2022년 1월 ~ 2022년 2월
모듈 3	2022년 3월 ~ 4월

프로그램 내용



*문의: 김두일 연구원 (02-749-2149,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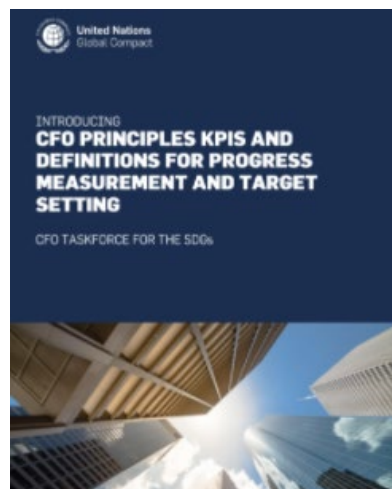
5. 먼슬리 8 월호 <SDGs 투자와 CFO 의 역할> 발간 안내



2021년 8월호의 주제는 'SDGs 투자와 CFO의 역할'입니다. 이번 Monthly Insight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2019년 10월, 세계 최초로 기업 전략과 투자를 통해 SDGs 달성에 집중하는 CFO들을 위해 발족한 네트워크, CFO 태스크포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CFO 태스크포스의 주요 활동인 'SDGs 통합 투자 및 금융 원칙'과 주요 성과 지표(KPI),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기업의 SDGs 금융 통합 모델'을 소개하며, CFO 태스크포스의 주요 활동과 더불어 UNGC CFO 태스크포스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Enel 사(社)의 알베르토 드 파올리 CFO와의 인터뷰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에 대한 최신 동향, Gender Equality Korea, Business Integrity Society의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주요 콘텐츠>

1. 유엔글로벌콤팩트 CFO 태스크포스



이번 호에서는 CFO 태스크포스가 제시하는 4 가지 원칙: △SDGs 임팩트 논리 및 측정 △SDGs 통합 전략 및 투자 △SDGs 통합 기업 금융 △SDGs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를 실제 기업 재무전략과 연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성과 지표(KPI)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먼슬리에서 소개한 주요 성과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성과 지표(KPI) 예시〉

SDGs 성과를 위한 KPI 및 목표		
귀사에서 SDGs 성과에 관한 KPI 및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SDGs 연계 KPI 및 목표)	예	아니오
SDGs 연계 KPI 및 목표를 일반에 공개했습니까?	예	아니오
SDGs 연계 KPI의 감사를 진행합니까?	예	아니오

SDGs 투자 거버넌스		
SDGs 임팩트를 기업 투자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임원진 보수를 결정할 때 SDGs 연계 KPI 와 목표를 고려합니까?	예	아니오
SDGs 임팩트는 기업 거버넌스 모니터링(이사회, 감독)의 대상입니까?	예	아니오

2.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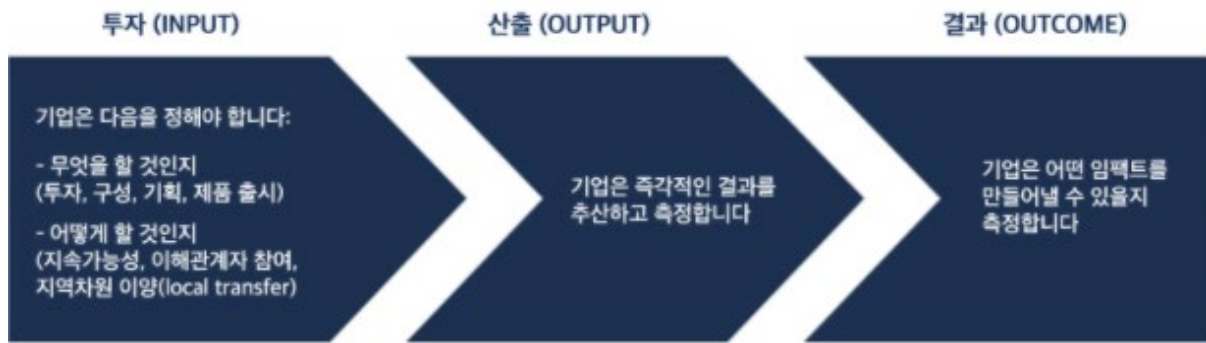


Enel CFO, 재생에너지로 성장하다
Enel CFO grows into Renewables

알베르토 드 파올리(Alberto De Paoli)
 Enel 사 (社) CFO와의 인터뷰

CFO 태스크포스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알베르토 드 파올리 Enel (社) CFO 는 Financial Director 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nel 은 2015 년 완전히 지속가능한 전략을 채택하면서, 시장 가치도 900 억 유로 이상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알베르토 드 파올리 CFO 는 녹색 채권보다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과 같이 보다 목표가 뚜렷한 상품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창출에 있어 CFO 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는지가 업무 및 지정학 측면의 핵심적이라고 강조하며, 에너지 혁명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기업 재무: SDGs 투자 주류화를 위한 로드맵 (2019)〉



CFO 태스크포스 4 가지 SDGs 통합 투자 및 금융 원칙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SDGs 금융 통합 모델’은 4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단계: 신뢰할 수 있는 SDGs 임팩트 이론 구축 단계에서는 임팩트 목표, KPI 설정 및 임팩트 측정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전략을 제시하며, 기업이 실제로 이론을 구성할 시 참고할 수 있는 PRI 임팩트 투자 마켓 맵을 예시로 제시합니다. △2 단계: SDGs 투자 임팩트 측정 및 모니터링에서는 임팩트 측정을 위한 통합 모델을 통해 구체적인 산출 방법을 제시합니다. △3 단계: 기업 전략과 지배구조에 SDGs 임팩트 통합 단계에서는 기업의 중심 전략, 지배구조, 자금 조달에 SDGs 임팩트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SDGs 를 위한 통합 모델을 제공하며, △ 4 단계: 지분과 채권에 대한 일반적인 목적 구조화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메커니즘과 채권이 어떻게 SDGs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5.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매월 기업 지속가능성과 ESG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ESG 경영 관심 정도 대학생이 갖는 ‘ESG 경영 관심 정도’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밝힌 상장사 기후 위험 공개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롭게 조정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체계 변화 소식, M&A 시장 주요 평가 수단으로 부상한 ESG, 대기업 이사회 내 ESG 위원회 활동 관련 소식을 소개했습니다.

6. GEK/BIS 컨텐츠



[글로벌 성평등 우수 이행사례] IKEA



[글로벌 성평등 우수 이행사례] UBS



[반부패 동향]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① 들어가며



[반부패 동향] 변혁적 거버넌스:
ESG에서 "G"의 포괄적 접근법

UNGC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성평등(Gender Equality Korea, GEK)과 반부패(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 프로젝트 콘텐츠 소개에서는 GEK의 IKEA와 UBS 등 글로벌 우수사례와 BIS의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동향' 및 'ESG 중 "G"의 포괄적 접근법' 등이 공유되었습니다.

Monthly Insights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

유엔 총회 UNGC 부대행사, Uniting Business Live 신청 안내 (9/20-22)



UNGC Uniting Business Live 가 다가오는 유엔 총회의 기간인 9 월 20 일부터 22 일까지 개최됩니다.

- 일시: 2021 년 9 월 20 일 - 22 일/온라인 개최
- 주요 일정: 기조 연설/포럼/고위급 대화/쇼케이스/워크샵 등 (자세한 일정 및 연사 추후 공지 예정)
- **참여 비용: UNGC 회원사 - 무료 / UNGC 비회원사 - 1 인 \$199**

Uniting Business LIVE 는 민간 부문 포럼(Private Sector Forum)의 고위급 다자간 대화, 글로벌 임팩트 포럼(Global Impact Forum)의 지역별 정보와 이행 전략 공유, SDG 비즈니스 포럼(SDG Business Forum)의 파트너십 및 리더십 사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유엔 총회의 첫번째 주에 열리는 본 행사에는 앞서가는 CEO 들과 국가, 정부 관계자, 기업 지속가능성 전문가 및 기업 리더, 유엔 산하기구 및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격차를 해소하고, SDGs 에 대한 목표를 상향하며, 오늘날 실행 가능한 협력 솔루션에 대해 모색합니다.

3 일간 이어지는 영감과 연결성, 그리고 의미 있는 도약에 대한 동참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발견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과감한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SCHEDULE OF EVENTS



20 September 2021
07:00-14:00 EDT



21 September 2021
02:00-08:00 EDT



21 September 2021
08:00-14:00 EDT



22 September 2021
07:00-14:00 EDT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LG 전자



UNGC 가입: (09. 12. 29)

LG전자는 전자제품, 모바일 통신기기 및 가전제품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전 세계 140여 개 사업장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해 2019년 매출액 62조 3,06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홈 어플라이언스&에어 솔루션(H&A), 홈 엔터테인먼트(HE),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MC), 비이클 컴포넌트 솔루션(VS), 비즈니스 솔루션(BS)의 5개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TV, 세탁기, 냉장고,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고객, 환경, 협력회사, 지역사회,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장과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중장기 관점의 3 대 지향점 및 9 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존중의 경영’,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3 대지향점인 ‘지능형 라이프 스타일 촉진’, ‘탄소 중립 및 순환경제실현’, ‘더 나은 사회구현’을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 및 기부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별 지원규모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국내 기부활동

- LG전자 생산사업장이 소재한 평택, 창원, 인천, 구미 지역 거점 병원 및 보건소에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기부했습니다.

- 대구 의사회에 의료용 방호복 3천벌을 기부했습니다.
-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온라인 교육용 스마트패드(G Pad3 8.0) 6,0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 병원내 감염 위험과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방문자 체온측정 및 간단한 문진 등이 가능한 안내로봇, 청소로봇을 서울대학교병원에 무상 렌트 하였습니다.
- LG그룹 주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50억원)에 동참하여 확진자 및 지역사회 감염 예방, 지역 취약 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2억원 규모 긴급 구호자금 지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친환경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LG 소셜캠퍼스'에 선정되어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에 LG 화학과 함께 총 2 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1. 아시아

- 인도: 봉쇄 조치로 일용직 노동자 등 저소득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LG전자 인도법인은 100만명 분량의 음식을 기부하였고, 공장 주변의 취약 계층 1,000명에게도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인도 병원과 격리시설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TV, 의료용 모니터 등 2,215대의 제품과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기부했습니다.
- 베트남: LG계열사와 2억원 상당의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지방정부에 지원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LG계열사와 6억원 상당의 진단키트 5만회분을 국가재난방지청에 기부했습니다.

2. 유럽

- 영국 : 런던의 피카딜리 자사보유 옥외광고판에 영국 정부의 코로나 방지 캠페인 슬로건을 활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독려 및 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국공립 병원 및 고아원 등에 기부했습니다.

3. 미주 (미국)

기부활동

-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주(state)정부에 N95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 약 30만개를 지원했습니다.
- 뉴저지주 정부에 의료용 모니터 50대를 기부했습니다.
- 호스피스 병동 및 격리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가족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및 태블릿 161대를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회사가 매칭하여 10만불을 기부했습니다.
- 미국 온라인 샵 매출의 5%를 성금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공익활동

- 뉴욕 타임스퀘어에 자사보유 옥외광고판을 통하여 사회적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뉴욕 시민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여 캠페인 동참 및 지속 독려하였습니다.
- 미국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목적으로 수년간 진행되고 있는 LG Experience Happiness 프로그램의 무료 사용권을 저소득층 5천가구에 무상 지원했습니다.
- 무상보증기간이 4/1~6/30일 사이 종료되는 LG전자 전제품의 보증 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마스크 5000 장 및 진단키트 2000 개를 기부했습니다



LG전자는 전세계에 약 140여 개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 임직원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고 현지 상황에 맞춰 재택근무 실시, 생산법인의 가동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사 협의체 운영

전사 감염병 발병에 따른 위기대응기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실행하였고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19 전사 대응지침 배포
2. 자사 및 자회사 임직원 상황 점검 일일공유
3. 글로벌 출장 금지/제한 지침 안내
4. 마스크 배포 및 손 소독제 비치
5. 전 사업장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여 유증상자 사업장 출입제한
6. 전 사업장에서 외부 방문객의 출입 금지 및 임직원들의 사업장간 출장을 금지
7. 해외 귀국 임직원, 동거가족 자가격리지침 안내
8. 재택근무 기준 및 재택근무자 예방수칙 안내
9.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안내
10. 사내 복지시설(헬스장, 카페 등) 사용 금지 조치
11. 구내식당에 가림막 설치 및 분산식사를 위해 사원식당 운영시간 연장, 도시락 등 테이크 아웃 메뉴 확대

글로벌 해외 사업장 지원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에서 감염자가 급속 확산되었던 시기에는 임직원이 사용할 마스크 30만장과 소독제 방호복등을 중국법인에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19 가 국내에서 확산되어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때, 중국, 폴란드, 멕시코 법인에서 한국 사업장으로 마스크 등의 비상대응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전세계로 코로나19사태가 확산된 시점부터는 중국법인, LG상사, 서브원 등을 통해 비상대응물품을 지원방안을 다각화 하여 글로벌 전 사업장이 전략적으로 상호 협조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마스크 약 81만장을 포함한 손세정제 및 소독제, 장갑 등이 해외 사업장에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호흡장애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소공급기, 산소마스크 등을 일부 해외사업장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공급망(협력사) 지원

기존 400억원 규모였던 무이자 자금지원을 올해 55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자금을 지원하는 일정도 지난해보다 4개월 앞당겨 협력사가 설비 투자, 부품 개발 등을 차질없이 이어가며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함께 저금리 대출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협력사들에게 마스크 12만장과 손세정제 등을 전달하는 등 협력사가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재택근무 운영

코로나19 관련 안전조치 차원에서 모든 임산부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등으로 어린 자녀 육아 문제가 시급한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권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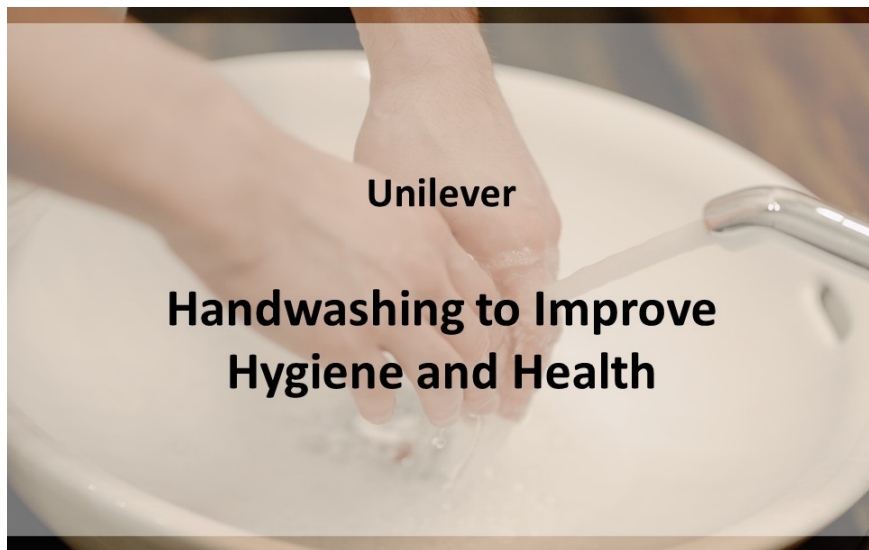
또한 출퇴근 혼잡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8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출퇴근을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플렉시블 출퇴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기간 중 근태는 정상근무를 인정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해 임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비하여 외부에서 클라우드에 원활히 접속되도록 관련 장비와 네트워크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주재원 가족 복귀 지원

해외에 주재하는 직원 및 가족이 한국으로의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공항 봉쇄나 항공기 운항 상황 등을 지속 확인하며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2. [SDGs 솔루션] 위생, 청결과 건강을 위한 손 씻기 - 유니레버



유니레버(Unilever)의 '라이프보이(Lifebuoy)' 위생용품 라인은 손 씻기와 같은 간단한 청결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10억 명 이상의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니레버는 자사의 지속가능한 생활 사업(Sustainable Living Plan)의 일환으로 손 씻기, 안전한 식수, 구강 건강, 자존감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더 나은 위생 수칙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레버는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들과 어린 학생들 간의 전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의 신생아 병동과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손을 씻는 습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이프보이의 '스쿨오브파이브(School of 5)'는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손 씻기를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난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의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왜 유니레버의 '라이프보이(Lifebuoy)'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매년 200만여명의 어린이들이 설사와 폐렴과 같은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데, 손을 씻는 간단한 행동만으로 이러한 수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더 나은 위생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농촌 지역과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라이프보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건강과 웰빙

유니레버는 본 캠페인이 현재까지 26개국의 3억 3,700만여명에게 도달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전염병의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양질의 교육

'스쿨오브파이브(School of 5)'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출석률과 교육적 성과가 향상되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CJ ENM, ESG 경영 본격화...위원회 만들고 UNGC 가입



- CJ ENM,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및 ESG 위원회 신설 등으로 본격적인 ESG 경영에 나선다고 밝힘
- CJ ENM ESG 위원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콘텐츠·커머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ESG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중추적인 역할 수행할 예정
- CJ ENM 관계자, “ESG 경영의 추진 기반과 실행 체계를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함

한국경제

2. SKT·카카오, 200 억원 규모 'ESG 펀드' 조성...중소·벤처 성장 지원



- SKT·카카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최초로 공동조성한 'ESG 펀드' 통해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여 ICT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하겠다는 계획 밝힘
- 양사, 각각 100 억원씩 출자해 총 200 억원의 ESG 펀드 출범 후, 추후 재무적 투자자 유치해 펀드 규모 250 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국내 빅테크 기업이 함께 ESG 펀드 조성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3 월에는 ESG·AI·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해당 분야 기술 주요 자산을 사회와 나누는 데 뜻을 같이 하는 협약 체결한 바 있음
- 양사, 이번 펀드를 통해 ESG 혁신 기업을 성장시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포부 밝힘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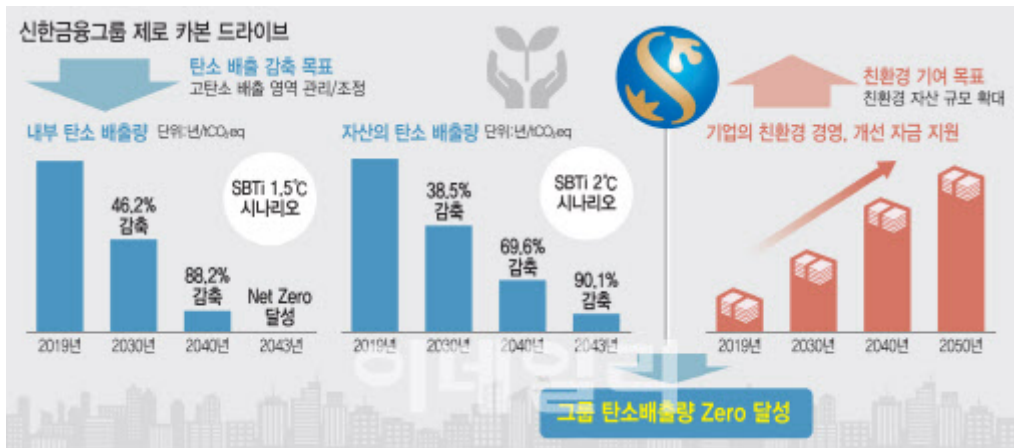
3. LG 전자, '2030 탄소중립' 속도…글로벌 탄소감축 캠페인 참여



- LG 전자, 온실가스 배출 줄여 탄소중립(Net Zero) 실현하자는 글로벌 캠페인 '비즈니스 앰비션 포 1.5°C(Business Ambition for 1.5°C)' 참여 선언 밝힘
- '비즈니스 앰비션 포 1.5°C(Business Ambition for 1.5°C)' 캠페인,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C로 제한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등 국제기구들이 연합해 조직한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가 주도하여 기획
- LG 전자, 앞서 발표한 '탄소중립 2030' 달성 위해 온실가스 배출(Scope 1)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의 총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50% 감축할 계획과 더불어 제품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 3)까지 줄이는 것을 새 목표로 세움

연합뉴스

4. 신한금융, 국내 최초 '탄소제로금융'으로 ESG 선도



- 신한금융그룹, 이해관계자와 함께 변화하는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파이낸스 포 임팩트(Finance for Impact)'를 그룹 ESG 추진 원칙으로 정하며 ESG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체화하고 있음
- 신한금융, 이를 위해 금융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 △신한카드 '친환경 카드' 출시 △신한라이프의 UN 책임보험원칙 가입 △신한자산운용 'ESG 전용펀드' 출시 등을 추진 중
- 특히 신한금융, 지난 11월 이사회 산하 ESG 전략위원회 열어 '탄소 제로화' 선언, 국내 금융그룹의 친환경 금융전략 선도하고 있으며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방법론 활용,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상 탄소배출 많은 기업 지원 규모 2030년 38%, 2040년 69%까지 감축할 계획이며, 2050년까지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상 '제로'로 만든다는 방침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그룹 경영진들과 'ESG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는 백신'이라는 말을 나눴다"며 "신한그룹 또한 국내 경제는 ESG 전환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5대 핵심과제에 집중해 차별화된 ESG를 보여주겠다"고 말함

이데일리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 회원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입니다.

- 한국콜마
- 아시아교류협회

2. COP/COE 제출회원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11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KDB 산업은행
- KB 국민은행
- NH투자증권
- 두산인프라코어
- 한국수자원공사
- 교보생명보험
- DGB금융지주
- 로이포스
- 두산중공업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2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매출액 USD 5,000만 달러 이상 기업)>

한국동서발전, CJ 대한통운

<1-2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슬로워크, 길바이오,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부산경제진흥원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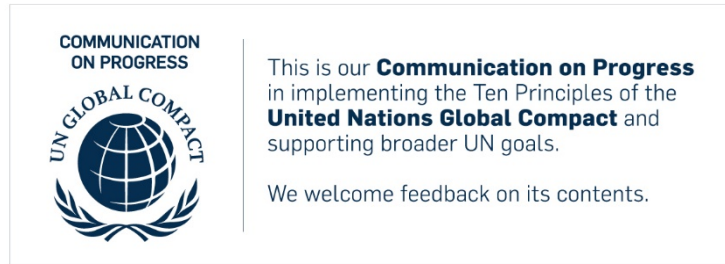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박희원 연구원